

[최은식T] 인문논술, 마지막에 이기기 위하여

이미 수능 전 논술을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정말 실전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 11월은 대부분의 논술 학원에서 정규반 수업이 끝나고, 각자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는 시기이다. 우리는 오늘 논술 준비생으로서 이 시기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전에 들어가면 시험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Part 1 수능 시험 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01 수능 최저학력 조건 확보

기본적으로 자신이 맞출 수 있는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고려해서 원서를 접수했을 것이다. 하지만 매년 평균적인 수능 최저학력 조건 충족률은 30% 수준이다. 이는 10명 중 7명의 학생은 수능을 생각보다 못 봐서 '아무리 논술 실력이 높아도' 탈락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수능보다 논술이 주요 전략인 학생이라면, 수능의 모든 과목을 잘 보려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위한 전략 과목에 집중하라고 권하고 싶다.

02 수능 직후 논술 시험 대비

11월 초부터 수능 시험이 있을 때까지 논술에서 아예 손을 놓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수능 직후에 시험을 치르는 대학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해둬야 한다. 이런 대학들은 수능 직후 하루, 이들의 시간으로는 충분한 대비를 하기 힘들다. 미리 11월 초에 해당 학교들의 최신 기출, 모의 문제를 최소 두 세트 이상 공부하기 바란다. 여기에 수능 직후의 연습이 더해지면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03 표현 유창성

논술과 관련된 역량 중에는 하루 아침에 길러지지 않는 게 몇 가지 있다. 그 중 하나가 '빠르고 정확한 문장 표현력'이다. 특히 시험의 긴장 속에서 자신이 의도한 내용과 형식으로 빠르게 문장을 써내려면 정확한 연습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연습은 '구술로 글쓰기'이다. 먼저 문제를 풀면서 원고지 작성 직전까지 마쳐 놓고, 원고지에 쓸 내용을 그대로 말로 표현해 보는 것이다. 말이 손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말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5~10번 시도 끝에 부드럽고 빠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실전적 표현력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긴장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쓰는 게 힘든 학생이라면, 이 연습을 하루에 20분 이상 꾸준히 하기를 바란다.

Part 2 실전 시험 운영에 대하여

01 어떤 문제를 먼저 풀 것인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모든 문제를 빠르게 검토해 보는 것이다. 문제들을 관통하는 화제가 있는지, 하나의 제시문이 여러 문제에 걸쳐 활용되는 경우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가장 효율적인 풀이를 위해 몇 번 문제부터 어떤 순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정리하는 것이다. 부디 시험장에서 무작정 1번부터 풀고 보자는 마음으로 급하게 접근하기 않기 바란다.

02 어떤 제시문을 먼저 읽을 것인가

마찬가지로 한 문제 안에서도 어떤 제시문을 먼저 독해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검토해야 한다. 대체로 기준과 대상이 구분되는 적용형 문제에서는 기준 제시문부터 읽고, 기준의 핵심과 관련된 부분을 대상 제시문에서 찾아가며 읽는 게 효율적이다. 또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제시문들 중에서는 더 독해하기 편한 제시문부터 접근하는 것이 권장된다.

03 어느 정도까지 완성도를 추구할 것인가

평소에 연습할 때라면, A+ 달성을 목표로 깊게 독해하고, 유기적으로 구조를 설계해서, 철두철미하게 문장을 쓰고 또 고쳐야 한다. 하지만 실전에서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면 적잖이 시간 부족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 실전에서는 독해와 개요까지는 A- 달성을 목표로 내용을 정리하고, 글쓰기는 B+ 달성을 목표로 잡고 빠르게 진행하기 바란다. 그리고 한 번 완성된 글은 중간에 검토하지 말고, 일단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 5분이라도 남길 수 있을 것이고, 그 5분 동안 빠르게 퇴고해서 글을 완성해야 한다.

04 도대체 얼마나 잘 써야 할까

당락은 기본적으로 경쟁자의 수준에 달렸다. 자신이 시험에서 A- 수준으로 잘 쓴다면, 보통은 합격하겠지만, 경쟁이 매우 치열한 대학, 학과에서는 탈락할 수도 있다. 다만, 경쟁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시험장에서 수험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기에 여기에 마지막 당부를 첨언하고자 한다.

명심하시라. 모든 논술 시험은 '잘 이해하고' 보면, 결국 교과서적으로 '뻔한' 논의를 유도하는 문제들이다. 태어나서 처음 생각해 보는 오묘한 진리를 정답으로 품고 있는 문제들은 없다. 그러니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충분히 교과서적으로 '그럴싸한' 답을 찾았다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정답을 작성하기 바란다. 논술에서 정답은 물론 정해져 있지만, 합격 답안의 독해 인정 범위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넓다. 나와 다르게 쓴 친구의 답이 매우 훌륭하다고 해서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입학식 때 둘이 사이좋게 웃으며 놀고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당신의 청춘에 감동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최은식 올림